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

태양절을 맞으며 2017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이야기

위대한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이 태어난 소식이 온 나라를 적시시키고 있다.

고경찬영웅소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처음으로 현지지도 하신 1961년에 태어난 점덕의 청년들로 부터 전 유명한 광부작업반이다. 바로 이들이 올해 태양절을 맞으며 낸민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죽하결문을 받아온 영광을 지냈다.

지난 4월 23일, 축하전문을 전달하는 보임이 진행된 검덕광업련합기업소로 통보된 회의에서는 부단히는 직경으로 모예인 만리마시대가 폭풍처럼 떠져 올랐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투적이 기록될 사변의 주인공이 된 고경찬영웅소대의 광부들은 자족소대원들은 물론 수천석 저하막장에서 담장을 한 번에 깨었고 만리마시대의 새 기준, 새 기록상을 위해 불사한 산마상 두개를 하고 있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열글빛은 홍분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검덕의 영웅소대

새해전투를 시작하는 이 나라의 모든 작업반들이 첫 모임들이 의해 그려졌다. 금광부상 4·5갱 제작 3소대의 광부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2017년 신년사를 받아온 감동으로 떠들썩했다. 지난해의 금지수는 성과들을 끌어올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올해의 주요업무를 외우며 점덕의 봄을 찾아오는 축제들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절차하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부끄러울 어려움』의 노래구성을 불러보는 세기장을 두고 향수를 더해놓았다.

이후 소대장 고경찬동무가 직경에 젖은 목소리로 자신의 용기를 더해놓았다.

『언제나 놀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 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족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고 하시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정직 가슴을 치러구만.』

소대원들도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겨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들을 한마니 한마니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았다. 2년ぶり인 경제계획을 수행하며 광부들은 그들의 일정과 함께 힘을 더하고자 힘쓰고 있다.

『언제나 놀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목같은 충성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민민의 정신력을 믿고 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빛을 끓우리로 둘째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점덕의 한 광부소대가 매양질을 맞으며 낸민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것이 왜 그렇듯 종래 한 시대적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작업반은 생산과 건설의 기본전후단위이다. 시내 물들이 모두 용모한 대회를 이루듯이 작업반들의 성과가 합쳐져 광장의 실적으로 흥행되고 이 나라 수천수만 작업반들의 적색한 발걸음을 용진의 한 보통우 이루면 그것이 바로 만리마의 거제한 밤구름으로 먼저된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차량은 러시아 첫 천리마자연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저 물음에 소대원들은 매일 광심의 대답을 해야 했다.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횡포로 한 초강경 위험과 악단적인 세제책동으로 국도에 말하에 계제 조선인민이 본노의 치를 떨면 1월의 그날에도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미제의 가슴팍에 흥장을 막는 심정으로 생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라고 쓴 아버지들의 전후보밀에 모여섰다. 새월은 멀리 훌쩍지만 오늘의 만리마시대 천군도 원수들의 충포성없는 치열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 세대처럼 광물총신으로 당총량을 결사용워하는 것이 점덕로에게 글로벌의 본분이고 생명이라는 원정의 진리를 빠져나가며 절감하며 그들은 상반년 계획완수를 단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한 결사전에 떨어났다.

2월 1일은 인차를 라고 막상에 들어온 사업체상인의 청탁에 훈계를 편밀대장을 한 아름에 안고 왔다. 계절도 없고 해빛도 없는 깊고 깊은 땅속이었지만 2월 16일이면 막장혁명사적지에 신말매꽃이 만발하게 됐다.

인차를 라고 막상으로 들어오는 그 날의 우리 장군님의 사전한원을 주며 고경찬동무는 2002년 6월 5일 또다시 점덕을 찾으신 장군님앞에서 소대의 영웅을 해마다 2년분 계획을 완수하는데 고집으로 되고 싶던 고종의 고종이 자신의 아름으로 되는 사람,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작업반의 승리와 전진에 티더들이 청해가 됐다. 광물총신에 끌려온 행파와 보물을 느끼는 광원사회주의 인간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울수 있는 생활의 언어였다. 이 뜻깊은 말을 고경찬영웅소대의 오랜 광부들에게 세보보다고 다시 명세를 상기했다. 3명의 영웅파 어깨를 걸고 선 12명의 소대원들은 당시로 경기장을 짚어오았던 충정의 결의를 당시에 광부들에게 들풀이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 2월 중으로 삼만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 년간계획수행의 둘째 구조를 알게되겠습니다.』

금풀의 15명 용사들은 그 행세를 지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에 당총량과 삼파에 힘을 끌어올리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깊은 깊은 속에 일하고 있지만 우리 장군님 생각만 하면 당총량드락 바로 걸어 우리 일터가 있고 위대한 장군님을 언제나 몸가고 모시고 일하는 광부들이 흥분에 끌려온 운명이 빠져나온다. 그런 빙선동연설이 끝나자마자 빠져나온다.』

『당에 헌신하는 광부들은 그들의 정신이 정직 가슴을 치러구만.』

『당

속성의 봄날에 꽂핀 민족대단결의 화원

회창한 봄이다.

해마다 온갖 꽃들이 앞을 다루어 피어나는 봄이 오면 그윽한 꽃 향기가 텁텁 넘쳐나는 속성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도 그칠세 없다.

유정하게 흐르는 맑고 푸른 대동강과 더불어 짙어가는 신록으로 꽂치수려해지는 속성,

에로부터 쑥이 많고 쑥향기에 물 허여하고 하여 쑥심으로 불리운 이성이 60년전 5월이 있어 자연의 향취만이 아닌 민족대단결의 성지로 길이 및나고 있다.

숭고한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펼치시며

감회도 세로운 주제 37(1948년) 5월 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속성에서 역사적인 4월 남북평원선교회에 참가했던 남조선성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협의회를 마련하시였다.

유구한 역사의 증진자인 양 거연께서 있는 아름드리버드나무의 그늘밑에 머물고 있는 청서당에서 차야내는 풍자기와 우민족의 대양 깁릴성장군님을 모시고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차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의 환신인 미소를 담으시고 꽃봉오리를 풀려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제 여러 분들이 헌서 회의에서 새벽된 걸정들을 꽂고 통성명에 반영된 구국강령실현을 위해 남조선에 돌아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는지 의논해보자고 하시며 그들의 손을 따뜻히 잡아주셨다.

백두산발을 주름잡으시며 《통방의 명주》하고 하세를 부리면 삶도색을 끌어내리면서 조국애의 러사적 사변을 알게 된 항일의 전설적 영웅 깁릴성장군님을 모시고 들판에 앉았던 남조선대표들의 갑작과 기쁨은 그지없었지만 품처럼 어려움과 진정감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남조선대표들의 실정을 헤아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김일성방찌산이 애써 농민들로 부터 민족, 한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어렵겠는가하고 하시며 우리 더운데 웃음을 멎고 담배도 피우면서 적석없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며 손수 대표들을 담배도 권하시고 불도 불여 주시였다.

한 없이 소탈하고 겸허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인품에 풀려 남조선

통일전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사례 정면하게 밝혀주시는 원출위 일의 용지와 전래적 저략앞에 길이 미리 풀 속이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주의주장, 리해 관계에 있어서 민족임에 닥쳐온 본질의 위기를 주동적으로 라개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구국통일의 기치 밑에 합작단결해야 한다는 민족대단합의 강령을 받아야만 남조선대표들의 기습속에서는 접새의 위인에 대한 탐탁없는 때혹파 홍보의 정이 세차게 풀어이번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김구, 김규식 등 남조선대표들의 소방과 의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명철한 해답을 주시면서 앞으로 미제와 괴승안 일당의 《단선단정》과 미군의 영구강점기 도를 저지하고 조선사람으로서의 고귀한 의리로 여기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를 짚어주시었다.

천연의 예지와 파악적인 통찰력으로 정세의 흐름을 완히 깨닫고 보시면서 끊임없는 방략과 묘술을 거칠침없이 점쳐가는 그이를 우러르며 남조선대표들은 탄성을 풀어하였다.

남조선대표들은 탄성을 풀어하였다.

모든 것에 명백해졌고 신심과 용기로 대처해졌다.

봉소 차려주신 동포애 넘친 오찬

협의회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시원한 강가에 나가서 휴식도 하고 장기도 풀사리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

그러자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이 저녁마다 어버이 수령님을 따라 강가로 나가고 홍명희, 조동양 등은 원두막에 올라 장기판을 마주하고 흥에 걸쳐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실정이었다.

김구의 말에 김규식, 조소앙, 최동오 등도 한목소리로 친동을 표시하였다.

아버지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혜아릴 수 없이 드넓은 도량, 만민을 뜨겁게 끓여가는 조용한 울진과 전선에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정통을 발아암으며 남조선의 인사를 은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과 전전, 오히려 사로잡혀 살아온 지난날을 절에 후회하면서 편곡작, 편복통일의 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민구국, 편봉에 국주왕에 나선 그들의 신변문제까지 걱정해 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조선에 나가면 미제와 그 주구들로부터 더욱 살엄한 감시와 박해를 당할 것이며 회유기반과 통상비방, 혐부기반을 보니 반드시 만난 힘을 차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이 종교 있는 민족적 향심과 통일구국, 만민구국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과 합작단결하는 것을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로 한데 몰아놓고 조선사람으로서의 고귀한 의리로 여기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를 짚어주시었다.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비롯한 지략과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말씀에 깊이 감동된 김구는 명약의 심정을 정중히 아뢰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평행하고 용을 했던 이 늙은 것을 뜯어내면서도 그에게 일어나고 신변 안전까지 걱정해 주시니 우리들은 이제 죽어 진퇴원들에 한 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둘의 박해와 위협이 아무리 모질다 해도 장군님의 뜻을 만들어 굴복함이 좌우 기어이 편곡작을 이득하겠습니까.

김구의 말에 김규식, 조소앙, 최동오 등도 한목소리로 친동을 표시하였다.

리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를 산에서 휴식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힘을 기쁘다고 하시며 일과에도 뛰어들고 철한 풍물이 풀이치는 산야에서 눈을 이불삼고 살다보니 이 계절에는 미역갈기가 앞당겨 출마하고, 그리고 나아 젊은 사람이 아닌 가라고 하시며 호랑하게 웃으셨다.

아직은 행기 가서려있는 대동강에 서슴없이 뛰어드시어 강물을 헤가드며 기운차게 나아가시는 백두산장군의 모습을 정한어린 눈길로 더욱 편

록 바라보며 김구는 김규식에게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였다.

«저 움이 넘치는 기상을 보시오. 우리 민족은 행운을 받아야 았소. 병약한 민족이 협기에 넘치는 강대민족으로 되었소. 누구도 진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요. 우리는 늘 놀고 쟁보이지 되었어. 우리가 헛살았거니?»

이어땅이나 남조선에서 그들을 초청하는 그 무슨 《연회》요 뭐요 하는 대치못해 기본적인 있었지만 거기에는 민족의 일이 없었고 피가 통하지 않았으며 천성이 흐르지 않았다.

더우기 민족에 눈이 떠 한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인생만년에 이르러 김일성장군님은 남조선을 온 민족을 금지하고 헤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수령을 마치시고 수령원들과 함께 물고기urma를 찾으셨습니다.

물고기urma는 족족 가마에 넣어 주기 위해 어죽을 주었다.

이후 일행은 이드나루고늘밀에 차린 음식점에서 빙 둘러앉았다.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촉배장을 풀고 둘러 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둘의 박해와 위협이 아무리 모질다 해도 장군님의 뜻을 만들어 굴복함이 좌우 기어이 편곡작을 이득하겠습니까.

김구의 말에 김규식, 조소앙, 최동오 등도 한목소리로 친동을 표시하였다.

리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를 산에서 휴식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힘을 기쁘다고 하시며 일과에도 뛰어들고 철한 풍물이 풀이치는 산야에서 눈을 이불삼고 살다보니 이 계절에는 미역갈기가 앞당겨 출마하고, 그리고 나아 젊은 사람이 아닌 가라고 하시며 호랑하게 웃으셨다.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끝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오천에 참가하여 홍봉에는 남조선대표들에게 어죽과 숭이회도 권하시면서 이렇게 강변을 놀라워하지 않고 하루를 즐기고 하시였다.

내년은 허물없이 뛰어들고 주어지는 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은 허물없이 뛰어들고 주어지는 데는 어

